

Q 검색

현대불교

f

[홈](#) > [기획](#) > [기획특집](#) > [상월결사](#)

국민에 치유·희망 전한 화엄문화축제 성료

송지희 기자 | 입력 2021.10.04 13:48 수정 2021.10.13 15:42 댓글 0



화엄사, 10월 1~3일 괘불재·음악제 등

‘화엄, 길 위에 서다’ 주제로
마지막날 천리순례단 함께



‘화엄, 길 위에 서다’를 주제로 3일간 청명한 가을하늘을 장엄한 화엄문화축제가 성료했다. 올해 화엄문화축제는 마지막날 화엄사에 당도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과 함께 한 문화법석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은 10월 3일 화엄문화축제의 마지막 법석인 ‘화엄음악제’를 개최했다. 음악제는 콰르텟 코아모러스(Quartet Coamorous)의 인트로 연주로 무대를 연 화엄음악제는 정호승 시인의 시낭송과 국악인 박정선 명창의 단사 사철가와 남도민요, 여성전통 타악그룹 도도의 퓨전 타악, 팼페라그룹 아띠의 중창, 라파우사 뮤지엄 공연에 이어 초대가수 소찬휘의 특별공연까지 다채로운 음악의 향연으로 이어졌다.

최신뉴스

선학원 폐쇄적 운영·횡포 막을 방안 있-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19. 스미소나(보살도) ②



[모정불심] 19. 효석 스님의 어머니



[현불논단] 가을의 문턱에서...



[병상포교일기] 초발심시 변성정각



인기뉴스

- 1 最古 금속활자에 묻힌 '직지' 성보 가치
- 2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순례, 가을 걷다



3 [삼보사찰 천리순례] 상월결사 순례단, 치 되새기다

4 천리순례, 영취산 넘어 '부곡' 도착

5 달콤한 몰트향 속에 깊은 산운이 담겨

studio GONG

[현대불교NEWS] 상월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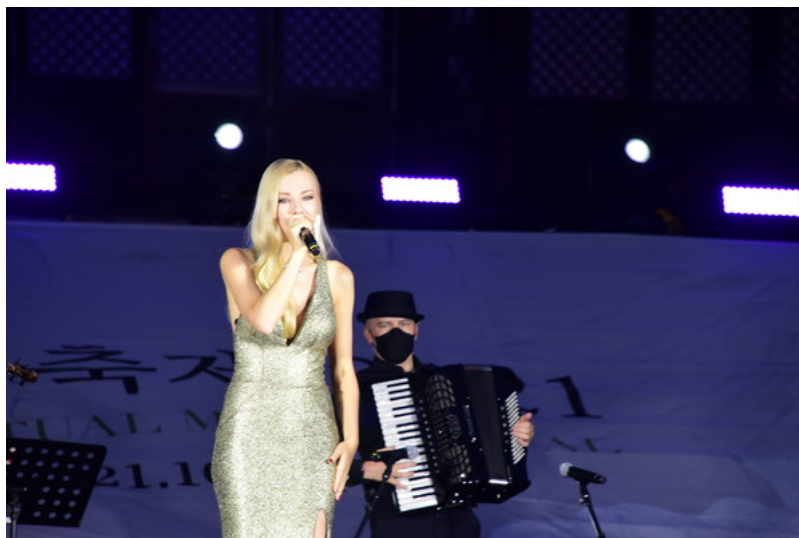
[영상] 상월결사 우중행선, 걸음마다 환희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슈



태고종 전북종무원장에 진성스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원력을 모아나가고 있는 삼보사찰 천리순례단도 이날 음악제에 함께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2600년전 길에서 나서서 길에서 진리를 전하다 길에서 열반에 든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아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중흥 원력을 잇는 한편, 코로나 팬데믹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러 송광사와 해인사, 통도사를 순례 중”이라며 “이번 화엄음악제에는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423km의 대장정 중 3일차에 화엄사에 도착한 천리순례단이 함께해 더욱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스님은 “화엄음악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선사하고 구례군민에게는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화엄’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이끄는 회주 자승 스님은 상월선원 결사를 상징하는 장군 죽비를 덕문 스님에게 전했다.



한편 화엄문화축제는 10월 1일 화엄순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인문학 강의와 버스킹 공연, 영화 상영에 이어, 10월 2일 ‘화엄사연 산화괘불탱’을 경내 앞마당에 장엄하는 괘불재를 거행했다. 그간 화엄사는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 하기위한 조치로 모사본을 내걸어 괘불재를 봉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괘불재 당일 진본을 모셨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화엄문화축제를 통해 구례 군민들이 위로를 받고 모든 존재가 가치를 인정받아 서로 화합하는 화엄법계의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깊은 가을밤 행사를 마련해 주신 화엄사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구례=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기자의 다른기사 >](#)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순례, 가을과 함께 걷다

우중행선(雨中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천리순례] 마음으로 밀고끌고, 천리걸음 가볍다

이시각추천뉴스

참선지도사·명상지도사 1~2급 자격시험 시행

사명대사 향훈 새기며, 정진 발원

해인사가 "불이 김선달?" 정청래 의원 사과하라!

근현대 불교종흥 이끈 구하한암 스님 조명

K-메타버서 국보 반가사유상 만나볼까

문명사 속 불교와 역병의 관계는

"코로나 시대 禪, '사회적 마음챙김'에 주목을"

참선지도사·명상지도사 1~2급 자격시험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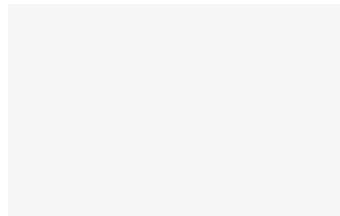
당신에게 추천하는 콘텐츠

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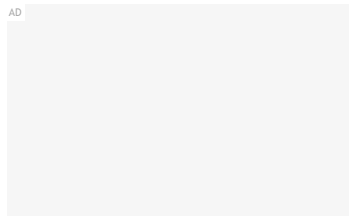
뭉쳐있는 복부지방, "이것"으로 짝- 빠져!!

천리순례, 영취산 넘어 '부곡'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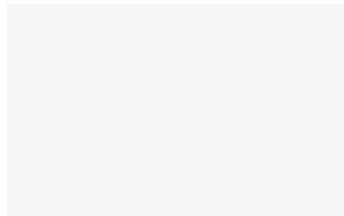
[포교콘서트]1. 불교중흥 위한 포교전당 열렸다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일반인 "김오곤 다이어트" 진작 할 걸..자면 서도 살 빠져!



사명대사 향훈 새기며, 정진 발원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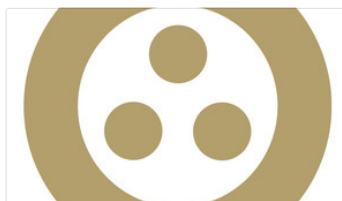
주요기사



광명사, 불교 스피치로 포교 강조



템플스테이 체험한 펭수, 묵언 수행에 성공했을까



광주시, 종교편향 논란 순례길 명칭 변경기로



[삼보사찰 천리순례]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코로나에도 '추석차례'는 사찰에서



성파 스님, "종정 후보 추대 대중의 뜻에 따라"



UPDATED. 2021-10-15 19:57 (금)

제보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구독신청	불편신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오피스텔월드) 606
대표전화 : 02)2004-8200 | 팩스 : 02)737-0698
법인명 : 현대불교신문사
등록번호 : 서울 아 00332 | 등록일 : 2007-03-09
발행·편집인 : 조해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일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현대불교신문. All rights reserved.